



사순 제2주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 가톨릭마산





#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2020년!

저는 2020년 하면 학창 시절에 보았던 ‘2020년 우주의 원더키디(1989년 작)’가 우선 떠오르고 이어 코로나19의 삶이 생각납니다. 지난 1989년에 봤던 애니메이션에서는 우주를 날아다니며 여행하는 삶을 그렸었는데, 현실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일상을 포기했었던 한 해였습니다. 2019년 말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의 출몰로 2020년은 우려와 기대가 가득했던 한 해였고 2021년이 시작된 지금도 대부분의 일상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백신과 치료제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것이 어떻게 현실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다가올지 기다리는 오늘입니다.

## “거룩한 변모” 사건

베드로의 신앙고백(8,27-30), 수난과 부활 예고(8,31-33)를 통해 베드로의 변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에 다른 제자들도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신앙고백을 하였던 베드로만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오르시어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한 것과 더불어 그것을 목격했던 세 사람은 어떻게 변하였을까. 여기서도 베드로는 입을 놀려 주님께 고백합니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말 씀입니다.

## 사순과 부활

2020년 사순과 부활은 너무나 조용했고 단순했으며 의미 깊었던 날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나날들. 소수의 인원과 더불어 최소한의 예식으로 일관했던 지난해. 2021년 부활은 2019년 이전에 했던 서로를 얼싸안으며 대축일을 기뻐할 수 있는 해가 되도록 주님께 간구하며 조금 더 조심하는 일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잠시 머물며 우리 자신을 더 돌아보는 시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시어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듯 우리에게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처럼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 보았으면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서 당신과 함께 지내면 좋겠습니다.”



이상록 요한 신부 | 교구 홍보국장



제 1 독 서 창세 22,1-2,9,10-13,15-18

화 답 송 ©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제 2 독 서 로마 8,31-34

복 음 마르 9,2-10

주일 진레

# 더 큰 사랑의 길: 내 힘으로 얻으려는 것은 망상이다

박재찬 안셀모 신부/ 분도 명상의 집

“신부님, 고해소 앞에서 성찰을 하고 있으면 지난번 고백한 죄와 똑같은 죄를 지은 한심한 저를 바라보게 됩니다.”

“매일 미사를 하고, 많은 기도를 바치고 있지만 저의 신앙생활은 늘 그 자리인 것 같고 오히려 요즘은 의무감으로 기도를 바치고 있는 듯합니다.”

어느 날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20년 혹은 30년 신자로 살았지만 늘 반복되는 죄를 짓고, 늘 같은 기도를 의무감으로 바치며 별로 성장이 없는 듯한 자신을 바라보며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더 큰 사랑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좁아진 듯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초기의 열정은 사라지고 오히려 모

든 것이 무미건조해지고 아무런 감흥이 없는 사막과 같은 시간은 누구나 견디어 내야 할 하나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의 내면이 온전히 무너지는 듯한 날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심지어 기도조차도 할 수 없구나!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닌 것도 결국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사실 자신의 힘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예수님의 사랑과 일치하겠다는 생각은 망상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무너짐의 체험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이정표입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어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참된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행복 선언’입니다. “예수님,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행복입니다!”라고 선언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기 시작할 때 진정한 영적 변화를 위한 싸이 트기 시작하고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 행복 선언을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신앙생활에 대한 틀 속에 갇혀 있거나, 거짓 자아라는 우상에 집착하는 경우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제대로 맡기지 못할 때 자아의 감옥 속에서 절망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늘 고해소에서 같은 죄를 반복하며 자신에 대해 “나는 이것밖에 안되는 구나!”라고 회의와 절망을 느끼며 고해성사 보기를 꺼리게 됩니다. 이 절망은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커다란 걸림돌입니다. 이 절망의 원인은 결국 ‘자기 사랑’입니다. 토마스 머튼은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은 자기 사랑의 절대적 극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감추어진 절망의 뿌리가 있습니다.... 절망은 자존심이 극도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고 완고합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도움으로부터 행복을 얻음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의 운명을 완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파멸이라는 절대적 불행을 선택하게 됩니다.”(『새 명상의 씨』, 200)

이러한 절망의 뿌리를 뽑기 위해 필요한 성덕 가운데 하나는 ‘겸손’입니다. 머튼은 “완전한 겸손 안에서 모든 이기심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겸손한 영혼은 자기 혼자, 자기 힘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을 위해 자기를 버리고 하느님 안에 잠겨 들어 하느님으로 변형됩니다”(『새 명상의 씨』, 201)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더 큰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자아실현’을 위한 것도, ‘자기만족’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희망을 두고, 예수님의 완전한 겸손과 순종을 본받아 사랑의 신비 속에 자신의 오만과 자만심을 던져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망상이나 절망에 빠질 수 있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하느님 앞에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할 때 참된 하늘의 기쁨이 내 삶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 살든지 죽든지 나의 생활을 통틀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에게서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필립 1,20-21)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느님께 맡겨 드리며 ‘지금 여기’에서 매일매일 하느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자아를 넘어’ 예수님을 통해 ‘자기-초월’의 좁은 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랑은 자연스러워지고 일상은 평화로워집니다. 무엇인가 해야만 한다는 생각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을 기쁨과 감사로 살게 됩니다.



# 아리랑. 꺾어내고, 살아내며, 피워내는 ‘정신’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제 영혼은 불행으로 가득 차고 제 목숨은 저승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구렁으로 내려가는 이들과 함께 헤아려지고  
기운이 다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저는 죽은 이들 사이에 버려져  
마치 무덤에 누워 있는 살해된 자들과 같습니다.  
당신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어  
당신의 손길에서 떨어져 나간 저들처럼 되었습니다. -시편 88,4-6

고통이 한가득한 탄원의 노래, 가장 순수한 기도이며 가슴을 에는 애원입니다.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시달리는 극심한 고통은 옴의 기도를 닮았습니다.

제 영은 산산이 부서지고 제 수명은 다해 가니  
저에게 남은 것은 무덤뿐. -옴기 17,1

절망적 위기 속에서, 자신을 포기해 버리고 자신에게서 감추어진 분이신 하느님께 부르짖지만 아무런 응답도 듣지 못합니다. 완전한 어둠과 하느님의 침묵 속에서 그는 영혼의 깊은 어둠을 겪습니다. ‘가장 암울한’, ‘부재하시는 하느님과 대화’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아침에 저의 기도가 당신께 다다르게 하소서. -시편 88,14

그럼에도, 모든 고통의 원인이 하느님께 있음을 알고 주어진 것을 수용해냅니다. 용기는 두려움으로부터, 희망은 절망으로부터 솟아나며, 기도는 절정의 고통 속에서 간절해집니다.

찬바람 꺾어내고 ‘나’를 피워내는 매화

울지 말거라. 아버지는 죄를 짓지 않으셨니라. 믿음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니라. 천주님의 은총에 보답하는 길을 가셨니라. 예수님은 죄 없이도 매 맞으셨고 죄 없이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니라.

천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내 깨우쳐 주신 것이 다 우리에게 은총을 담아서 준 선물 바구니예요. 바구니는 절대로 비어 있지 않고 영혼의 꿀과 빵을 채워 주셔요. 기도하세요.

-강희근. 시극, 순교자의 딸 유섬이. 첫째마당

아버지에게서 철저히 버려진 것 같은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 아버지와의 관계를 쥐고 기도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것 보라. 겨울초는 겨울이라도 몸을 밖으로 내밀며 의연히 자라고 있다. 신기하지 않아? / 네, 신기해요... 초남이 우리 어머니는 풀 하나 잎 하나에도 신의 입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 그래, 입김이 있다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닌 것에서 생명이 나오고 지켜진다는 말일 거야.

-둘째마당

신께서 부여한 입김으로 생명을 입은 존재, 그 근원적 힘을 우리는 잃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그 힘을 잊지 않는 이상, 우리는 살아있게 됩니다.

골무는 그냥 골무가 아니니라. 일하는 이의 도구요 정신이니라. 정신 하나로 아녀자는 일생을 사는 법이니라. -셋째마당

삶의 심지가 되는 정신은, 사소한 도구 하나도 정신이 깃든 도구로 변모시킵니다.

옥과 눈처럼 청진한 마음이 되는 것이 매화의 진실이라는 것,

매화는 저 자리에 저리 피어 있지만  
바라보는 이가 여인이면 여인으로 피고  
바라보는 이가 아리따우면 아리따움으로 피고  
바라보는 이가 봄이면 봄 아침으로 피고  
바라보는 이가 그리움이면 그리움의 저녁으로 피네. -셋째마당

그 정신은, “보시니 좋았다”던 근원자의 시선이 되어, 옥과 눈처럼 청진한 마음을 아리따움으로, 봄으로, 그리움으로 피워냅니다.

아리랑 고개를 그리스도교의 용어로 번역하면 골고타라고 할 수 있다. 그곳은 우리 민족의 고대 사회에서는 백성이 하느님(천제)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하늘에서 하느님의 아들이 강림하는 곳이다. 골고타는 새 생명이 나타나는 곳, 바로 그리스도교의 아리랑 고개라고 할 수 있다.

아리랑은 새 생명의 탄생을 위하여 겪는 모든 것을 노래한다. 새 생명의 탄생이 이루어지기까지 사랑이 겪는 고난과 투쟁, 의지와 희망을 노래한다.

시편은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라고 겪은 고난과 투쟁, 구원과 희망, 하느님과의 사랑과 교제의 역정을 노래한 온갖 시의 집대성이다. 이집트라는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 죽음을 겪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죽음과 부활의 원형을 형성하는 하나의 노래, 아리랑이다.

갈망과 기다림, 꿈을 꾸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 즉 버림받음, 분리, 억압, 빼앗김, 박해, 수모, 생명의 위협이 있는 세상에서는 아리랑이 불려질 수밖에 없다. -조태영, 시편에서 듣는 아리랑

깊은 영혼의 깊은 향기는 주변을 타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정신을 노래하며, 모든 상황, 모든 것 앞에서 밝음과 맑음을 드러냅니다.

매화가 찬바람 이겨 내며 저리 핀 것은  
찬바람 이겨 내게 힘을 주신 분  
그분의 깊은 뜻 향기로 살피라 하심입니다.  
찬 서리 견어 내게 힘을 주신 분  
그분의 높은 뜻 속 깊이 기리라 하심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분  
영혼의 눈으로 꽃피는 소리 들으라 하심입니다. -유섬이, 셋째마당

기도하세요.

정신을 잊지 않고, 살려내며, ‘나’를 꽃피우도록.





기억할 선종 사제  
김덕신(요셉) 신부  
2018년 3월 1일



기억할 선종 사제  
석종관(바오로) 신부  
1974년 3월 3일



기억할 선종 사제  
지대건(야고보) 신부  
1990년 3월 5일



기억할 선종 사제  
정수길(요셉) 신부  
1978년 3월 6일



기억할 선종 사제  
서원열(라파엘) 신부  
1999년 3월 7일

#### 본당사목방문

일사: 3월 4일(목)  
본당: 사람동/ 진영

#### 지구장 본당방문

일사: 3월 3일(수)  
본당: 삼천포/ 남해/ 사파동/ 가음동/  
양곡/ 대방동  
일사: 3월 4일(목)  
본당: 성심원(준), 산청, 합천



#### 교구장 동정

##### 최양업 신부 탄생 기념미사

일사: 3월 1일(월) 10:30  
장소: 주교좌 양덕동성당

##### 교구 법원 관계자 모임

일사: 3월 5일(금)

##### 직수여미사

일사: 3월 7일(주일) 11:00  
장소: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 ▶ 교구/본당

##### 최양업 신부 시복 기원미사

일사: 2월 28일(주일)  
장소: 각 본당

##### 최양업 신부 탄생 기념미사

일사: 3월 1일(월)  
장소: 각 본당

##### 모라토리움 신학생 입소

일사: 3월 2일(화)  
▶ 2월 23일(화)에서 일정 변경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 신학생 기숙생 입사(광주신학교)

일사: 3월 2일(화)

##### 상반기 소공동체장 교육

일사: 3월 2일(화) 10:00~15:30  
장소: 상남동성당  
대상: 신입 소공동체장  
준비물: 필기도구  
문의: 사목국 055·249·7021~2

#### 소공동체 연구위원 모임

일사: 3월 3일(수) 18:00  
장소: 교구청  
문의: 사목국 055·249·7021~2

#### 청년간부 및 단체장 연수(1박 2일)

일사: 3월 13일(토) 14:30~14일(주일) 13: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지구 및 본당 청년회 간부, 사도직  
단체장, 가톨릭학생회 회장단  
참가비: 6만 원  
준비물: 마스크, 텀블러, 세면도구(수건),  
필기도구, 미사 준비  
신청: 3월 7일(주일)까지

#### 청년 신앙강좌

일사: 3월 28일(주일) 13:00~15:30  
장소: 교구청 1층 대강당  
강사: 이정림 신부(교구 청소년국장)  
대상: 교구 내 청년  
준비물: 마스크, 텀블러, 필기도구  
신청: 3월 21일(주일)까지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청년부'검색

※ 강좌에 한 번 이상 참가를 원하면 신청서 작성  
바랍니다.(자율 청강 불가)

#### ▶ 위원회/기관/단체

##### 포콜라레Focolare 생활말씀 월 모임

마산: 1주(화) 10:30 교구청  
창원: 1주(목) 20:10 사파동성당  
진해: 1주(월) 10:00 해군성당  
진주: 1주(주일) 15:30 하대동성당  
문의: 윤지령(요세파나) 010·4490·6996

##### 푸른군대 성모신심 미사

일정: 매월 1주(토)

**가톨릭마산**

**교구보 매너 광고  
신청받습니다**

교구보 광고 후원은  
복음전파를 위한  
봉헌입니다.

■문의: 홍보국 055)249-7072

Enjoy your life  
**AV Team** (주)AV팀 Since 2005~  
avteam.co.kr

음향, 영상 시스템  
설계/ 시공/ 방문 점검 및 컨설팅  
김지훈 바오로 010-3243-5655

**신세계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판매단위 - 날병 1박스 20개  
2중 세트 10개 1박스  
3중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010-2652-0706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 2021-1학기 교구 『여정』 성경공부 일정

| 마산지구 |                |                 |
|------|----------------|-----------------|
| 본 당  | 개 강 일          | 과 목             |
| 구암동  | 3월 8일(월) 20:00 | 루카 복음서, 사도행전    |
| 호 계  | 3월 2일(화) 10:00 | 요한 복음서          |
| 월 영  | 3월 2일(화) 10:00 | 가톨릭 서간, 요한 묵시록  |
|      | 3월 3일(수) 19:30 | 마태오 복음서         |
| 양덕동  | 3월 2일(화) 10:00 | 은빛(로마서와 코린토서)   |
|      | 3월 8일(월) 19:30 | 역사서 2           |
| 삼 계  | 3월 2일(화) 10:00 | 예언서             |
|      | 3월 2일(화) 10:00 | 은빛(창세기)         |
|      | 3월 5일(금) 20:00 | 시서와 지혜서         |
| 월남동  | 3월 2일(화) 10:00 | 루카 복음서, 사도행전    |
|      | 3월 4일(목) 20:00 | 역사서 2           |
| 창 념  | 3월 3일(수) 19:30 | 루카 복음서, 사도행전    |
| 완월동  | 3월 2일(화) 20:00 | 요한 복음서          |
|      | 3월 4일(목) 10:30 | 요한 복음서          |
| 산호동  | 3월 4일(목) 20:15 | 마태오 복음서         |
| 함 안  | 3월 5일(금) 10:40 | 마르코 복음서         |
| 의 령  | 3월 3일(수) 10:30 | 은빛(로마서와 코린토서)   |
| 상남동  | 3월 3일(수) 14:00 | 은빛(지혜여정 5)      |
| 칠 원  | 3월 5일(금) 10:00 | 은빛(호세아서와 예제키엘서) |
| 창원지구 |                |                 |
| 양 곡  | 3월 5일(금) 10:40 | 루카 복음서, 사도행전    |
| 반 송  | 3월 2일(화) 10:40 | 역사서 2           |
|      | 3월 3일(수) 10:40 | 요한 복음서          |

| 창원지구 |                |                |
|------|----------------|----------------|
| 본 당  | 개 강 일          | 과 목            |
| 용 잠  | 3월 4일(목) 20:10 | 가톨릭 서간, 요한 묵시록 |
| 대방동  | 3월 2일(화) 10:40 | 가톨릭 서간, 요한 묵시록 |
| 사림동  | 3월 4일(목) 20:10 | 역사서 1          |
|      | 3월 2일(화) 10:00 | 역사서 2          |
| 덕산동  | 3월 4일(목) 10:30 | 은빛(지혜여정 1)     |
|      | 3월 8일(월) 19:30 | 요한 복음서         |
| 사파동  | 3월 5일(금) 10:40 | 마태오 복음서        |
|      | 3월 8일(월) 20:00 | 바오로 서간         |
| 가음동  | 3월 5일(목) 10:00 | 요한 복음서         |
| 명서동  | 3월 4일(목) 12:40 | 은빛(지혜여정 3)     |
|      | 3월 8일(월) 19:30 | 역사서 1          |
| 여좌동  | 3월 2일(화) 10:00 | 은빛(요기과 코헬렛)    |
| 진주지구 |                |                |
| 가좌동  | 3월 3일(수) 19:30 | 바오로 서간         |
| 하대동  | 3월 4일(목) 10:00 | 요한 복음서         |
| 산 청  | 3월 3일(수) 10:30 | 은빛(지혜여정 3)     |
|      | 3월 5일(금) 19:30 | 바오로 서간         |
| 상평동  | 3월 4일(목) 20:00 | 바오로 서간         |
| 함 양  | 3월 3일(수) 19:30 | 가톨릭 서간, 요한 묵시록 |
| 금 산  | 3월 2일(화) 10:00 | 요한 복음서         |
| 신안동  | 3월 3일(수) 20:10 | 오경 1           |
| 옥봉동  | 3월 3일(수) 19:30 | 마르코 복음서        |
| 문 산  | 3월 8일(월) 19:30 | 마태오 복음서        |

| 진주지구      |                |                |
|-----------|----------------|----------------|
| 본 당       | 개 강 일          | 과 목            |
| 칠암동       | 3월 2일(화) 10:00 | 마태오 복음서        |
| 사 천       | 3월 5일(금) 10:30 | 요한 복음서         |
|           | 3월 5일(금) 19:30 | 요한 복음서         |
| 봉곡동       | 3월 2일(화) 10:00 | 은빛(지혜여정 5)     |
|           | 3월 3일(수) 19:00 | 루카 복음서, 사도행전   |
| 거제지구·북지시절 |                |                |
| 장 평       | 3월 5일(금) 10:30 | 역사서 1          |
|           | 3월 2일(화) 10:00 | 요한 복음서         |
| 대 건       | 3월 4일(목) 10:00 | 은빛(탈출기)        |
|           | 3월 5일(금) 19:30 | 루카 복음서, 사도행전   |
| 북신동       | 3월 4일(목) 10:00 | 루카 복음서, 사도행전   |
|           | 3월 5일(금) 10:00 | 은빛(지혜여정 1)     |
| 지세포       | 3월 3일(수) 19:30 | 가톨릭 서간, 요한 묵시록 |
| 태평동       | 3월 5일(금) 19:30 | 오경 2           |
| 장승포       | 3월 3일(수) 19:30 | 역사서 2          |
| 마산교도소     | 3월 3일(수) 13:30 | 마르코 복음서        |
| 작은예수회     | 3월 4일(목) 10:00 | 은빛(탈출기)        |

### ※ 교구청 성경공부 취소

일정이 변경되면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문의: 성경부 010-7479-7026

055-249-7025~6

장소: (마산) 월영성당 10:00  
(창원) 사파동성당 10:00  
(진해) 중앙동성당 10:00  
(거제) 고현성당 10:00  
(진주) 평거동성당 10:00  
(통영) 태평동성당 10:30  
문의: 푸른군대 회장 010-4848-7106

### 마산가르멜산의 성모재속회원 모집

일시: 5월 17일(월) 10:00  
(셋째 주일 지난 월요일)  
장소: 진동 가르멜 수도원 피정의 집  
대상: 만55세 이하 남녀 가톨릭 신자  
문의: 010-8525-1150

### 예수회 동영상 및 실시간 영상 강의(3월 개강)

내용: 성경대학 동영상 녹화 강의(송봉모 신부)  
한 학기 7회 동영상 링크 발송  
·어떻게 실제로 기도하고 성찰할 것인가?  
-묵상기도, 관상기도, 성찰과 식별 등(권오면 신부)  
실시간 영상 강의(ZOOM),  
매주 목 14:00~16:00 (11회)  
문의: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1:00  
장소: 마음의집(창원시 도계동)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  
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운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010-3551-2038

### 교구 성폭력 피해 접수처

우편: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성폭력 피해 접수처 앞 (우 51727)  
E-mail: [solace@cathms.or.kr](mailto:solace@cathms.or.kr)  
문의: 055-249-7003/ 7007

### 유사종교 상담 및 피해사례 접수처

E-mail: [samok3@cathms.or.kr](mailto:samok3@cathms.or.kr)  
문의: 사목국 055-242-6776

### 기 타

| 수도회 성소자 모임 | 일 시             | 장 소       | 문 의                                                                        | 비 고            |
|------------|-----------------|-----------|----------------------------------------------------------------------------|----------------|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 3월 7일(주일) 09:30 | 서울 돈암동 본부 | <a href="mailto:korvocation@columban.or.kr">korvocation@columban.or.kr</a> | 대상: (만)19세~35세 |



# 바벨탑 이야기

김영선 루시아 수녀 / 광주가톨릭대학교



이번에 우리가 순례를 하게 될 곳은 신아르 지방, 곧 바빌론 지역입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고대 이스라엘 민족과는 달리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고 있는 현장으로 찾아가고자 합니다. “자, 성읍을 세우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워 이름을 날리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 땅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자.”(11,4) 이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 탑을 쌓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실 창세 11,1-9의 바벨탑 이야기는 왜 인류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온 세상에 흩어져 살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원인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락의 첫 구절인 11,1은 “온 세상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날 말들을 쓰고 있었다.”고 말하고, 마지막 구절인 11,9은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말을 뒤섞어 놓으시고, 사람들을 온 땅으로 흩어 버리셨기 때문이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하늘까지 닿는 탑”이란 도시의 수비를 위해 쌓은 탑일 수도 있고, 고대 바빌론의 신전인 지구라트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이것은 니므롯들이 우상숭배를 목적으로 쌓은 탑입니다. 요셉푸스는 “니므롯은 ... 하느님이 또 한 번 땅을 홍수에 잠기게 하시면 복수하겠다고 위협했다. 물이 올라올 수 없을 만큼 높은 탑을 쌓아, 홍수 때 멸망한 조상들에 대해 복수하려 했다. ... 그렇게 그들은 탑 건설에 착수했으며 ... 그 탑은 모든 이의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고 설명합니다(『유다 고대사』 I, iv, 2-3).

그런데 바벨탑을 쌓으려는 그들의 의도(이름을 날리는 것과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한 하느님의 평가는 “이것은 그들이 하려는 일의 시작일 뿐, 이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였습니다(11,6). “이름을 날리자”는 말은 하느님도 손댈 수 없을 만큼 유명하고 강력해지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흩어지지 않게 하자”는 말은 다양성을 허용하지 않는 강제와 폭압에 의한 획일화 정책, 곧 모든 적수를 물리칠 연대성을 구축하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곧 인간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를 과시함으로써 신과 인간의 경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시도는 왜 잘못된 것일까요? 또 이 비판은 누구를 겨냥한 것일까요? 바벨탑 이야기는 도시 문화와 인간의 기술에 대한 비판이요, 강대국의 제국주의에 대한 공격이며, 하느님 없이 이루어지는 일치는 획일과 폭력, 압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 바빌론 제국의 힘에 의존하려는 유대인들, 그곳의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어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언어를 버리려는 동료 유대인들에게 던지는 비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탑을 쌓는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조처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말을 뒤섞어 놓아, 서로 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자.”는 것이었습니다(11,7).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대화의 막힘, 의사소통의 장애, 관계의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거기에서 온 땅으로 흩어 버리셨습니다.”(11,8) 이제 각 민족은 이웃 나라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각자 자기들의 탑을 쌓는 일에 골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 나라에 관한 종말론적 전망은 바벨탑 사건의 역전으로 종종 묘사됩니다. 예를 들면 사도 2,7-11에서 성령강림을 통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 간의 소통이 회복되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그리고 묵시 21,22-26에서는 흩어졌던 민족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밀려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간 사회의 참된 안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 모든 민족들의 선을 추구하며 정의를 확립하고 평화를 건설하는 데 있지 않을까요?